

광주교육연수원, 동계 교직원 직무연수

‘삶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 주제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도서 활용 연격 연수도

광주교육연수원이 오는 2월 말까지 ‘삶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를 주제로 동계방학 교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10일 광주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직무연수는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과정’ 등 집합연수 28개 과정이며, 교직원 1,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용 도서 활용’ 등 원격연수 181개 과정도 운영된다.

토의·토론, 실습, 활동 등 참여형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계방학 교

직원 직무연수는 ‘삶을 성찰하고 배움·나눔·성장을 위해 실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직원 대상 동계 방학 교육 직무연수에 참여 중인 교직원들 모습

‘이번 직무연수는 맞춤형 연수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며 “교직원들이

성장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하는 졸업 행사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에 있는 중등초등학교는 지역에 있는 The-K 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 제 72회 중등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졸업식을 축하 자리 마련하였다.

최근 The-K 지리산가족호텔 내 호텔 연회장에서 중등초등학교 졸업생, 중등초등학교별설유치원 학부모, 교직원을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과 축하선물로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였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소규모 농촌학교의 졸업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학부모와 함께 즐기는 졸업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졸업식에 참여한 6학년 임○○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축하해 주어 초등학교 6년을 마치는 시간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평생교육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실시

지역 학생 대상 프로그램 17개 강좌 운영

광양평생교육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월 초부터 22일 까지 3주간 지역 학생들의 겨울방학 생활을 돋기 위해 ‘체험이 있는 독서 여행’ 등 17개 프로그램, 320여명의 학생들의 참여하는 다채롭고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꾸미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실용프로그램으로 토탈공예, 접팔클레이, 종이접기, 예쁜손글씨반, 난타가 편성되었고, 특히 학생들의 꿈과기를 살리고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능 UP! 로봇과학, 나도 미술사, 어린이 밸레, 창의융합 코딩 같은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원을 위해 두뇌 활성! 체스&보드게임, 바둑교실, 창의 드론 축구, 컴퓨터 활용, 문화가페, 체험이 있는 독서 여행 강좌를 마

련하여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획 적이고 알차게 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타 강좌에 참여중인 노00 학생(제철초, 4학년)은 “난타와 바둑 수업을 듣고 있다. 유치원 때 복을 친 경험이 있어서 난타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역시나 재미있다. 그리고 바둑도 즐겁게 두고 있어서 교육관에 오는 게 매일매일 기다려진다”라고 말했다.

광양평생교육관 관계자는 “겨울 방학동안 다양한 재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2020년 겨울학기 학생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광양평생교육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실(061-815-1618)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교육청 1호 공영형 사립학교

‘영암여자고등학교’ 첫 발 내딛다

전남도교육청의 제1호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영암여자고등학교가 공식 첫 발을 내디뎠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첫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 동아학원(영암여자고등학교)이 신청한 공영형 이사 2인에 대한 임원취임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영암여고는 ‘공영형 사립학교’로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 13개 과제 중 핵심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또,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며, 사무직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는 등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3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4년의 임기 동안 학교법인 동아학원 이사회 일원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을 시작하는 ‘영암여고’에 대해 앞으로 4년 간 대규모 시설사업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평훈 행정국장은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에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동참해 준 동아학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관계자와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많은 사립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학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학생독립회관서 ‘알찬 겨울나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알찬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강’과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12개 강좌로 개설된 ‘겨울방학특강’은 13~23일 8일 간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강좌는 △8일간의 한국사 산책 △도자기 빚는 도서관 △어린이 방송댄스 등이다.

‘겨울독서교실’은 28~31일 4일 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겨울독서교실’은 ‘내가 사는 지역 여행’을 주제로 △도서관 이용법 △내가 살아가는 지역

속 탐험하기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리포터 인터뷰하기 △아메리카 대륙 브레인스토밍 △회전목마 토론 △여행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구성됐다.

상시 운영하는 유아 대상 강좌로는 △도담도담 책 놀이터 △좋은 책 읽어주기 △들어 볼래 우리 고전 등이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최두섭 관장은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아이들이 추후 신학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곡성교육문화회관, 2020년 ‘도서관과 함께하는 겨울독서교실’

곡성교육문화회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 도서관 이용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도 서관과 함께하는 겨울독서교실’을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운

영했다.

전남도교육청 역점과제인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글쓰기교육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이번 독서 교실은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진로)’, ‘지구를 사

랑해요(환경)’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독서 교실은 7일부터 8일 까지는 ‘진로’와 관련된 푸드아트와 접목한 나의 꿈 표현하기, 톨스토이 단편 읽고 그림일기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으며, 9일부터 10일 까지는 ‘환경’을 주제로 업사이클링 알아보기, 종고책을 이용한 팝업북 만들기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독서 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재밌는 놀이가 많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